

경제

2012 새해에는

10고임세 광주지방조달청장

“엑스포·혁신도시 사업 적극 지원”

“여수 엑스포·나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지역업체 참여 돕겠다

최근 부임한 고임세(56) 신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18일 청정실에서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광주·전남 경제가 훨씬 어려운 것 같다. 그만큼 조달청이 할 일이 많고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공공조달청의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7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 70% 수준인 1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해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분리 발주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낙찰률을 높이려면 조달환경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

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류나 계약 요건, 가점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계약업체가 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은 청구 후 4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조달청과 맺은 계약서만으로 대금이 가능한 ‘네트워크론’(계약금액의 80%까지 가능)을 지역업체가 적극 추천할 방침이다.

황금시장인 정부의 공공조달시장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거래된 공공조달 규모는 약 80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은 미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발·생산한 물품 중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등록된 품목 수가 36개로 전국의 3.9%에 그치고 있다.

고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이 조달우수제품 업체로 선정되면 매출이 2~3배 성장한다”며 “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에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도 주목할 계획이다. 경비·청소 등 비정규 용역직 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4대 보험료 정산을 통해 들여다볼 생각이다. 4대 보험료 납부 실태를 보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남공고와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3년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해 조달청 품질총괄과장·예산사업관리과장·민원실장 등을 거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전남 무역 1000억달러 첫 돌파

지난해 1057억7700만달러 ... 수출·수입 모두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무역 규모는 1057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533억2500만달러 수입액은 524억5200만달러로, 수출과 수입 모두 사상 첫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수출이 133억4000만달러, 수입이 52억2300만달러로 전체 무역규모는 185억6300만달러였다.

전년도보다 수출은 17억5900만달러(15.1%)가 늘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수입은 3억3000

만달러(-5.9%) 줄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81억1600만달러에 달했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무역규모가 872억1400달러(수출 399억8500만달러, 수입 472억2900만달러)로 광주의 4.6배에 달했다. 하지만 전남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72억44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전년도(-44억9600만달러)보다 61%(27억4800만달러) 커졌다.

광주와 전남의 총 수출액은 533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광주·전남 사상 처음으로 수출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광주·전남의 수출액은 지난 2002년 100억달러(광주 35억9833만달러,

전남 64억2579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5년 234억4153만달러(71억8857만달러, 162억5296만달러), 2007년 321만3203만달러(101억4393만달러, 219억8810만달러), 2010년 418억6670만달러(115억8135만달러, 304억1595만달러)를 기록, 2~3년 사이에 100억달러씩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석유제품(59억5600만달러)과 플라스틱제품(47억9300만달러), 유·무기화학물(46억달러), 승용차(42억4000만달러), 반도체 등 프레스스(24억2000만달러), 냉장고(14억달러)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400억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수입액은 2001년 114억8695만달러(광주 17억1016만달러, 전남 97억7679만달러)에서 2004년 203억7883

만달러(30억3750만달러, 173억4132만달러), 2006년 316억1212만달러(40억7932만달러, 275억3280만달러), 2008년 503억9443만달러(48억7704만달러, 455억1738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404억6448만달러(55억5260만달러, 349억1188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원유와 나프타, 유엔탄, 철광석 등 광물성 원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역의 수출입액은 1123개사, 수입입액은 1493개사였고, 전남은 수출 1628개사, 수입 1563개사로 집계됐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해 전체 무역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에코 드라이브 모바일 앱 출시

기아자동차는 18일 대학(원)생 대상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인 ‘제2회 기아자동차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 앱콘’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아 에코 드라이브 텀블’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차량의 연료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앱은 1월 19일부터 출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 설립 대행 106건 1955명 고용창출 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모두 106건의 공장설립 대행을 통해 195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모두 168건의 공장설립 상담을 받아 이 가운데 106건의 대행 실적을 기록했다. 공장 설립 대행 신청에서 승인까지 평균 1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 대행 실적의 유형별로는 신설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설 9건, 업종변경 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로는 담양(25건), 장성(16건), 무안(15건), 함평(9건), 해남(7건), 나주(7건), 장흥(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and Value. Rows include 코스피지수 (1892.39), 코스닥지수 (513.20), 금리 (3.36%), 원·달러 환율 (1141.80원).

“반덤핑 제소 철회 정부가 앞장서라”

광주시·상의 촉구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 광주시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까지 반덤핑 제소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18일 “월풀의 반덤핑 제소가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간 문제, 경제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미 상무부, 월풀 등에 반덤핑 제소가 정당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또 정부와 미 상무부 등에 삼

성전자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반덤핑 제소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이날 외교통상부에 반덤핑 제소를 철회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월풀의 반덤핑 제소가 한국 가전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광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최악의 경우 5000여명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외교통상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도 정부에 강

력 대응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1일 월풀이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제소했다.

제소가 받아들여져 30% 가량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한 4300여명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70여개 협력업체 8000여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설 상여금 줄고 4~5일 쉰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최근 자금사정이 악화돼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줄였으며 대부분 4~5일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105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설 자금수

요 조사’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업체는 73.6%로 전년도 80.2%보다 6.6%포인트 감소했다.

상여금 지급 업체 가운데 작년 설보다 상여금을 확대지급할 업체는 2.2%, 전년 수준 지급은 51.6%, 축소 지급은 19.8%로 조사됐다.

또 이번 설에 업체 당 평균 2억6320만원 정도의 임금과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하며 이 중 1억7670만원을 확보해 자금확보율이 67.1%로 전년도 70.4%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47.3%가 ‘곤란하다’고 응답, 지난해 36.9%보다 10.4%포인트 상승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kook Tea featuring a tea plantation, a woman, and various tea products. Text includes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and '한국제다'.